

The Reunified Korean Economy

月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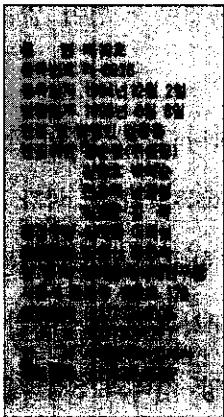
統一經濟

1996. 6 통권 제18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統一經濟

6
1996
제 18호



권두언 -----
아시아·태평양의 5강 한국 • 최평길2

특별기획 -----
토론회: 4者회담과 남북 관계 전망4

초 점 -----
4者회담과 한미의 대북 전략 • 오삼교41

시사논단 -----
북한의 운송 및 인프라체계 연구 • 정필수50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 이강석61
남북 교류·협력의 문제점과 실천적 과제 • 김영운73
북한 경제 체제의 분권화에 관한 분석 • 이장규88

통일다리 -----
북한의 민족주의 • 백웅진101

북한경제 -----
북한의 기계 공업 • 김명식107

인 물 -----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9) • 김인구118

자 료 -----
「통일경제」 목차 색인(1995. 1 ~ 1996. 5)128

본지의 편집권은 본지편집부에 있으며, 본지 편집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본지편집부 편집 책임하에 실린 것으로서, 본지 편집부에서
본지에 실리도록 한 것은 필자의 개인 책임이며, 본지편집부의 편집 책임하에 실린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의 5강 한국

최평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20 20년이 되면 한국은 국가 경제 총량 면에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음으로 세계 7강국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7 개의 경제 강국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한 국가는 한국 외에 미국, 중국, 일본 등이다. 따라서 경제 규모 면에서 보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4강에 속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 2020년이 되면 남북한은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1992년 필자의 연구팀이 미국·일본·중국·러시아·한국의 5 개국에서 남북한 최고 전문가를 각각 10 명씩 50 명을 선발하여, 서기 2000년까지 남북한에서 전개될 변화 양상을 예측하게 한 결과, 2000년 전후에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한 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1995년 김일성 사후 통일을 이룩한 경험을

가진 독일의 남북한 전문가까지 포함된 새로운 전문가 100 명을 상대로 예측·조사한 내용에서는, 북한체제 붕괴로 인한 흡수 통합 가능성을 절반의 전문가가 2005년 전후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절반의 전문가는 합의 통일이 2010년 전후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꼭 2005년이나 2010년을 꼬집어 말한다가 보다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좀더 길게 보아 한국이 세계 경제 7강이 되는 2020년까지를 내다본다면, 통일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의 경제 4강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변이 없는 한 너무나 명백하다.

2020년 전후에 하나가 된 통일 한국의 경제력에 쾌적한 사회복지지수, 국가 신용도, 경쟁력, 그리고 한반도를 보위하는 데 맞는 적정 수준의 군사력만 향상시킨다면 동북 아시아나 태평양 지역의 5강국은 허

상이 아니다. 통일 신라 이후 唐, 고려 이후 몽고 제국, 조선조의 명·청 등 대륙 세력의 영향력 속에 은연중 국민 뇌리 속에 자리잡은 사대주의, 대국 종속 심리는 이제는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에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태어나 한국 경제 발전과 민주화 현장에서 비교적 균형있는 생활과 교육을 받은 현재의 20~40대 신세대는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한반도 인식과 행동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기업의 하청 업체가 아닌 5대양 6대주에서 홀로 서기를 몸부림치는 오늘의 한국 기업 군단이 있으며, 전략핵, 유도 무기와 신형 잠수함, 전투기를 미국 이외의 러시아, 유럽 지역에까지 손을 뻗쳐 기술 이전과 개발을 도모하려는 군, 공직자, 기업,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몸으로 때우는 군이 아니고 기계 기동화로 변모된 통일 한국군이 성장하고, 새로운 시대의 성숙된 국민 의식, 경제 성장, 질 높은 생활 수준, 통일 국력이 결합된 아시아·태평양의 5강 한국은 그 위상이 뚜렷이 부각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의 5강 한국 개념은 세계 경제 7강, 월드컵의 축구 8강을 훨씬 앞당기고, 세계화 속의 초일류 한국임을 자타가 인정하게 하는 이론적·정신적 실천적 기반이 될 것이며, 남북 통합의 견인력이 될 것이다.